

**우리 사도직에서
마리아니스트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마리아회 총본부

2018년



들어가면서

마리아회 모든 단위체들 안에서 다른 이유로 인하여, 마리아니스트 사도직의 구체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어려운 이슈를 야기합니다. 마리아니스트 은사를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정체성을 살고, 증진시키고, 전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특별히 마리아니스트 사도직의 책임자 위치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이 문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평의회 책임 아래에 시작하여 작성한 이 문서는 2018년 총회에 제출되어 총회는 “아주 유용한 문서로 승인되었으며, 총회는 마리아회의 모든 사업장에서 이 문서를 이용하기를 제안” (35차 총회 #57a)했습니다.

이 문서는 전 세계의 평신도 협조자들과 마리아회의 많은 수도자들의 공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총회는 단위체의 평의회가 “문서를 연구, 보급, 문맥의 전후 사정 파악 및 적용하기를” (35차 총회 #57) 요청합니다.

이 전자문서는 단위체들이 자신의 지역 상황에 가장 알맞은 형태로 이 문서를 활용할 수 있게 마리아회의 3개 공식 언어로 준비되어 총본부의 웹사이트(www.marianist.org /교육 분야)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작업이 우리 사도직의 관리를 진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8년 9월 12일 로마에서
총본부 교육부장
에소도마 맥시민 마그난, SM

**우리 사도직에서
마리아니스트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설명

1.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문서는 마리아회의 수도자들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우리 사업의 평신도 협력자들의 자문을 받으며 이루어진 오랜 연구의 종합체이다. **우리 사업 안에서 적절한 마리아니스트 정체성을 보존할** 능력이 감소하는 곳이 많아져 이를 우려하는 총평의회에 대한 응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관심이 2012년 세계총회와 2015년 세계 장상 모임에서 반향을 일으켜 마리아회의 은사적 사명에 관하여 “마리아니스트”적인 사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특징지우는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촉발시켰다. 이런 상황은 마리아니스트 은사를 새롭고 포괄적으로 보급하는 실질적이고 은혜로운 계기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 문서는 마리아회 수도자들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는 문서이지만 아주 소중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사도직을 공유하는 우리 평신도 협조자들과의 연관도 당연히 있는 것이다.
2. 시작 때부터 의도한 이 작업의 범위와 맥락을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그 범위와 맥락이 *아닌* 것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 작업을 하면서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되는 유일한 원형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에서 공통적이고 (또는 공통적이어서 하는)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되는 기본 요소basic elements, 즉 각 지역의 상황에 알맞고 융통성 있게 적용이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이 된다고 해도 각 요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충실해야 하는 그러한 기본 요소의 한 세트로 만들려 의도된 것이다. 특정한 사업에서 마리아회 수도자들로부터 전달받아야 하는 정신과 영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 그 사업에서 “마리아니스트”라는 명칭이 단지 이름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실질적인 마리아니스트의 특성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각 사업이 선교·사목계획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만들어 표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서에서 우리는 마리아회 회원들이 사도직에 임하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 관계하는 단체들이 다르고, 다른 지역적 환경 속에서 사목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시작점으로서, 이 문서는 **마리아회 회원들이 우리 은사를 적용하여 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실질적이고 역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래서 소유권, 운영권, 결정 등등에 관한 특수한 상황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이 결여된 어떠한 사도직도 “마리아회”의 사도직이라고 간주될 수 없다. 이 문서는 어떤 사도직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이고 역동적인 능력을 마리아회가 가지도록 하는 조건을 확실히 함을 추구

한다.

3. 참고사항으로 말하자면 이 문서에서 사업을 규정하는 데에 쓰이는 “마리아니스트”라는 말은 앞의 단락에서 언급한 조건을 갖춘, **마리아회**의 사도직만을 지칭하며 마리아니스트 가족의 다른 가지(branch)의 사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분명하고 적합하게 우리의 교육 사목에 적용되는 “사업work”이라는 단어는 마찬가지로 마리아회의 다른 사목에도 적용하려 한다.

서론

4. 이 문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마리아니스트 사업을 특징 지우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다.

1. 우리 마리아니스트 은사에 적합한 요소들을 보여주는 **마리아니스트 사도직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구별해주고, 우리가 맡기에 가장 좋은 사업이 무엇이며 우리 사명에 적절한 사업이 무엇인지 식별하도록 도와준다.

2. 마리아니스트 사업에 있어야 할 (지역 공동체나 단위체의 차원에서의) **마리아니스트 공동체의 은사적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며, 우리 은사의 전달자로서의 개인 수도자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한다.

3. 우리 사도직 안에서 **평신도의 참여**에 대한 미래 전망과 시각을 제공하고, 동시에 마리아니스트의 정체성이 역동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4. **마리아니스트 행정**(관리와 운영)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마리아니스트 사도직 안에서, 마리아니스트 행정과 마리아니스트 사업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한다.

5. 마리아니스트 사도직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폐쇄하는 것에 대한 **지침 원리를 마련하여 단위체를 지원한다.**

5. 이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마리아니스트” 사업이 무엇인지를 총체적이고 광의적으로 나타내는 6가지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보여준다. 이 여섯 가지 요소가 모두 어느 마리아니스트 사업에 다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의 본성과 그 현장의 환경에 따라 이 여섯 가지의 요소들이 모든 사도직 내에서 중요성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요소 중 어느 것이라도 전혀 없다면 안 되는 것이다. 선교 계획에서 각 사업체나 단위체에서 결정된 분명한 일정에 따라서 솔직하고 철저한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평가에 따라서 여섯 요소 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개가 결여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특정 사업체나 단위체의 책임자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정 사업체에서 이런 조건들이 거의 전무하고,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방법이나 의향이 없다면 그 사도직이 마리아회의의 사업이라고 계속 생각해야 할지 질문을 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6. 마리아니스트 사도직은 아래와 같은 사업이어야 한다.

I. 복자 사미나드의 선교 계획에 기초한 사도직

- II. 교회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통합된 사도직
- III. 마리아니스트 수도공동체에 의해 운영되는 사도직
- IV. 진정한 가족 정신을 창출하도록 고안된 구조를 가진 사도직
- V. 사람의 전체적인 양성에 초점이 맞춰진 사도직
- VI 정의, 평화, 연대 그리고 창조물에 대한 존중심을 증진하는 데에 유익한 사도직

7. 위의 목록에서 “조건” 안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하나의 요소가 더 있으니, 이는 이 모든 조건들 안에 스며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영혼으로, 각 조건의 기초이고 이 조건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여섯 조건 각각의 존재 목적(raison d'être)이다. 그 요소는 **우리 회의 마리아적 차원Marian dimension**이며, 회원들과 활동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유명한 수도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깃발을 받든 것처럼, 우리는 성모님 공경을 확대시키고 성모님을 통하여 영혼들 안에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그분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태세를 갖추고 마리아의 이름과 그 깃발을 받든다 ... 우리의 사업은 위대하며 아름답습니다. 만일 우리의 사업이 보편적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리아의 ‘선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¹⁾
8. 우리의 수도자 선교사의 투신은 그리스도를 닮는 남녀를 양성하는 마리아의 사명에서 마리아를 돕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의 fiat, 마리아의 견실함, 지혜에 의해 영감을 받고, 우리 구원의 원천이요 정점이 그리스도이심을 꾸준히 알리는 것에 의해 영감을 받는다. 우리의 모든 사도직에서 마리아는 우리의 모범이시다.

1) 기욤 죠셉 샴이나드의 피정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 1839년 8월 24일

I. 마리아니스트 사업은 복자 샬미나드의 선교 계획에 기초한다.

의미

9. 마리아니스트 사도직은 그 본성과 기원에서 볼 때에, **복자 기욤 죠셉 샬미나드의 선교적 전망에서 영감을 받았다.** 우리의 은사라고 정의되는 샬미나드 신부의 영성은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시고자 했던 독특한 역할을 관상하고 느낄 수 있는 강생의 실체와 믿음의 작용에 놓여 있다. 마리아께서 강생의 신비에서 당신의 역할을 맡으셨듯이 우리는 이 지상에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재탄생시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으로 들어 올려졌다고 의식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믿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교육하시고 충실히 동반하시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사명은 성취되고 이 사명은 주님의 처분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마리아적 특징은 우리 성소와 모든 마리아니스트 사업의 필수적이고도 피할 수 없는 요소이다.²⁾
10. 우리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봉사로 표현되는 생활한 믿음을 통하여 **사람들과 공동체들을 양육**”(생활규칙 63)하고자 하는 지향을 가지고, 교회와 모든 사회에 봉사함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 사도직에서 어떤 수단을 선택하든 목적은 같은 것, 즉 믿음을 강화하고 크리스찬을 증가시키는 것이다.³⁾
11. 복음화 사업은 특별히 인간에 대한 특별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고 강생의 신비에 의해 깨달음을 얻는다. **각 사람은 사랑으로 활기차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맏아들과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선택하신 성모님에 의해 양육되는 하느님의 자녀이다.**
12. 이 믿음의 관점은 우리의 사명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즉 사려깊음, 경청하는 제자, 다른 이들을 진심어리고 기쁘게 수용함, 민첩함과 준비됨, 환대,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2) 이 서술은 복자 샬미나드의 저작과 수도회의 여러 시대에 여러 나라에서 했던 여러 연구들에 바탕한 것입니다. 이 연구들은 심리 신부, 클롭 신부, E. 뉴베르 신부, 벤록 신부, 알바노 수사, J.P. 베리에 신부, 아르나이스 신부, 세계 총회, 총장 회람 등등입니다. 최근의 여러 문서 중에서 2001년 세계 총회 문서 3장 25-26항, 2006년 세계 총회 문서 8-12항과 77-83항, 2012년 총회 문서 5항, 마누엘 꼬르페스 총장의 회람 1호와 2호, 죠셉 라크너 신부의 Marianist Charism and Educational Mission 77-83쪽, 그리고 “Marianist Education: Heritage and Future” 선집에 있는 Principles of Marianist Educational Praxis에 소개된 Rosa Maria Neueunschwander de Rivas의 “Educating for Formation in Faith: Theological Principles in Marianist Education” 122-128쪽

3) 샬미나드 신부의 편지 725번: “어떤 형태를 취하든 청소년 교육은 존엄하신 성모님의 보호 아래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한 봉헌할 때에 자신에게 다짐했던 목표가 아닙니다. 교육은 믿음의 정신과 그리스도교의 정신을 모든 곳에 알리고 신자를 증가시킨다는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는 데에 이용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생활규칙 5.1조에도 있다.

의 확고한 믿음과 확신에 찬 겸손이라는 **마리아의 덕행**으로 특징 지워진 방식으로 수행하게 한다.

- 13. 이 사업은 개방되어 있으며, **다양한 시대, 장소 및 문화에 적응**하여 오늘날 세상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오심을 진척시키고 각 개인이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각 사람이 자신의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영향

- 14. 우리의 은사와, 이 은사로부터 나오는 선교 방식은 오랜 전통으로 검증을 받았으며, 샬미나드 신부님의 가르침과 행위로부터 받은 **유산**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다. 창설자는 젊은이들이 참된 책임을 수행하는 여러 활동을 통해 새롭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특히 젊은이들의 신앙쇄신에 기여함으로써 당시의 교회와 시민 사회에 대한 봉사를 생각했다. 강생에 근거한 그의 인간학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어떤 종류의 사도직을 하며 사도직에서 어떻게 성공할지를 알려준다.

- 15. 그 사명의 봉사자로서 “[복음화와] **성덕**을 우리의 모든 사도직과 사목 계획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창설자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많은 성인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지만 실제로 성인의 숫자는 아주 적을 것입니다.”⁴⁾

- 16. 정치와 법률에서 복음화에 대해 저항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 사회에서 부는 바람의 반대 방향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창설자의 시대에는 물속에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샬미나드 신부님은 베드로처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놀랄만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 우리의 포스트-크리스찬 시대의 물은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복자 기욤 샬미나드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예수만이 인간의 마음의 깊은 갈구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가망이 없는 듯이 보이는 물속으로 그물을 던지십시오.**”⁵⁾

창설자의 은사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히

- 17. 모든 마리아니스트 사업은 마리아니스트 은사를 육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 안에서, 사도직은 단위체의 선교 계획에 기초하여 양성의 계획을 개발한다. 이 양성의

4) Sent by the Spirit: Re-creating Chaminade’s Missionary Dynamism in Today’s World, 46-47쪽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마리아회 총장 데이빗 플레밍 신부 (그리고 세계 총회 대의원들)에게 보낸 편지” 2001년 7월 7일

5) 위와 같은 출처

계획은 오늘날 사미나드의 사도직 전망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 **마리아니스트 선교 계획**은 그 사업의 특별한 성격과 직접적 수혜자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이들과 각자가 처해 있는 종교 상황을 고려해서 작성한다. 그 사업과 관계를 맺으러 오는 모든 이들은 이 은사적 맥락 안에서 풍요로워진다. 상황이 다르면 우리가 이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다른 기대치로 이끌 수 있는 다른 접근법이 물론 요구된다. 신앙과 은사는 *점차적으로* 깊어가고 확고한 주의가 요구된다.

18. 신앙으로 양육된 상황 안에서의 공동체적 원동력.

사업 자체의 실제 목표에 덧붙여, 우리는 협조자들 수혜자들 그들 각자가 그들의 신앙 체험과 인간적 발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동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떤 경우에, 단체들이 복음 묵상과 나눔에 대하여, 그리고 신자 생활의 실천에 대한 나눔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고 성장이 된 후에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단체들이 사도직에서나 그 주위에서 마리아니스트 은사의 전달자가 되기도 한다.

19. 지속 양성. 은사는 역동적으로 살아 있고, 그래서 영적, 사도적 차원에서 양성을 지속 하며 사도직에 접목하고 핵심적인 것을 존속시킨다. 이런 방법으로만 우리는 창설자의 전망과 마리아니스트 전통,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선교적 소명에 지속적으로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20. 공간과 장소는 말을 한다. 장소는 말을 한다. 우리 사도직의 주변 환경의 모든 측면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당이나 경당에서 마리아니스트 전통이 부각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도직의 이름을 붙힐 때에나, 공적 유인물이나 중요한 행사를 위한 로고를 만들 때, 그리고 종교적 표지, 도서관 소장품, 소그룹이나 실(室)들에 붙여진 이름, 전자 통신, 장식품, 우리의 사도직과 정체성에 대해 안내해주는 리뷰와 리플렛 등을 만들 때 마리아니스트 전통이 부각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는 창조와 환경을 존중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사도직은 외관상으로 미학, 생태학, 보존 등에 관하여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표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평가

21. 마리아니스트의 여러 지침과 단위체의 문서뿐 아니라 이 문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용하여 자기 평가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은 사도직의 각 개인과 하위 그룹이 이 사업이나 사도직에 얼마나 잘 종사했는지, 수혜자들은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복음화가 잘 되었는지 등을 검토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 위함이다.

22. **경계, 조심.**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방해하는 나쁜 영향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너무 많은 이들을 소외시키거나 우리의 예언자적 증거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물질적 또는 사회적 “성공”에 집착하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하고, 후하게 베풀지 못하게 하거나 섭리에 대한 신뢰를 방해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하는 봉사에 방해가 될 정도로 경제적 이윤에 집착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23. 다른 사람들로부터, 마리아니스트 은사에 정통한 사도직 외부 인사들로부터 받는 정기적인 **사업 평가**를 통하여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지 사도직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이 사도직이 무엇을 말하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
24. 어떠한 평가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도직에서의 “마리아”적인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도직은 “마리아의 보호 아래에서 ... 사도직 쇄신과 재건의 살아 있는 모습”인가? “개방성, 협력, 상호성, 단체성, 그리고 봉사의 정신으로 특징 지워”지는가? 그 일을 관리하는 이들은 하느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배우고, 지속하고 심화시키며, 신앙을 적극적으로 증언하고 사명 안에서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데에 함께 하”⁶⁾도록 돕는가?

6) *Principal Characteristic of Marianist Administration* (1.2) 참조

II. 마리아니스트 사업은 그것의 교회적·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잘 통합된다.

의미

25. **교회의 일.** 우리의 일은 교회의 사명과 복음화의 봉사에 있다. 각 사업은 그 자체보다 상위의 어떤 것에 속해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단지 하나의 세포라는 인식을 가진다. 그래서 모든 마리아니스트의 일은 교회의 일이며 해당 교구에 포함된다. 지역 주교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또는 최소한 주교의 격려와 긍정적 동의 아래에 시작된 것이며 담당 기관이 표현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그렇다고 사업의 마리아니스트 정체성에 마리아회가 연결되지 못하게 막고, 사도직에 있는 풍요로움을 막는 것은 아니다. 다른 권위(예를 들면 주교) 아래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곳이라 해도 그 부름은 우리의 은사가 받아들여지고 나누어지며 자유롭게 보급되는 원의를 포함하는 것이다.

26. **육화.** 우리의 은사는 육화의 은사,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은사이다. 우리의 운명과 미래는 우리 시대의 운명과 미래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 은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상황에 특별히 민감하다고 가르칩니다 ...”(2001년 세계 총회 19항)

27.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된 조직:** 그 사업이 지속성, 안정성, 그리고 장기간 견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성격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다. 개인의 사적 재능에만 얽매어 있는 사업은 그 일을 주관하는 그 개인의 능력에 너무 의존하게 되지만 제도적인 성격을 발전시키는 이들은 “죽지 않는 사람”⁷⁾이 된다.

영향

28.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구체적인 육화:** 복음은 자신의 특정 문화와 역사, 그리고 주어진 정치적 경제적 상황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가 손을 내밀고자 하는 특정한 사람들이다. 육화의 교리를 강조한 복자 샤미나드는 현실적인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였고, 이에 맞도록 유연성을 가지는 것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다: “새롭게 설립된 기관들은 시대와 장소, 그리고 환경에 맞게 적응해야 합니다 ... 모두 그 시대의 관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성령은 이 모든 것 안에 있는 미미한 변화에 힘들어 하시지 않고, 역사의 여러 시기에 정신과 방법들이 많지만 그들 모두에게 도달되는 방법을 아시고, 그 영향이 보편적임을 보여주십니다.”⁸⁾

7) The Chaminade Legacy, I, 154번 문서: “이의(異議)... 6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

8) 샤미나드 신부의 편지 85번, 자쿠피(Jacoupy) 주교에게 보내는 편지. 1817년 1월 20일

29. **법인체:** 특정 국가에서 마리아회와 그 사업의 법적 신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샤미나드는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 해도 항상 그곳의 법률과 정부를 상당히 존중하였다. 그의 전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는 유효한 수단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방법을 신중하게 상황에 맞게 적용했다. 사실 샤미나드 신부가 이런 측면에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는 샤미나드 신부의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창설자의 현명한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⁹⁾
30. **우리의 평가:** “우리는 세상과 교회에 제공할 풍요로운 선물(은사, 영성, 혼합구조, 교육의 전통, 평신도와 마리아니스트 가족에 대한 이해, 인적 자원과 물질적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한다.” (2001년 세계 총회 문서 20항)

우리 사업에 적절한 교회적·지역적 통합을 확실히 하기

31. **좋고 정확한 형태의 계약:** 명확히 확인된 그 지역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지역 당국의 승인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립된 마리아니스트 사도직에서 명확한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까이에 신부님이 생띠뿔릿(Saint-Hippolyte) 계약서와 다른 문서, 그리고 부속 안내서를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 가지고 갔습니다.”(샤미나드 신부의 편지 8/1, S. 390-2, 1826년 3월) “정상적이지 않은 양식의 문서가 있었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S. 641-2; 1822년 9월 10일) “…… 내가 M에게 보낸 그 조건에 알맞은 계약서, 적당하고 정확한 형태의 계약서가 들어가 있는 큰 소포를 우편배달부가 배달해 주었습니다. ……”(1840년 12월 5일 편지 1230번)
32.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감:** 어느 나라에서 같은 종류의 일들 (가톨릭 학교, 요양원, 직업 학교, 본당 등)을 여러 가지의 형태로 한데 묶어 주는 조직이 있다면 여기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이 조직들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양질의 도움을 주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소개해줄 수도 있다. 사회정치적 상황이 우리의 사명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때에 그들의 공헌은 특별히 더욱 유용하다. 그 사도직의 마리아니스트적 특성의 잇점에 추가하여, 마리아니스트 사도직의 국내·국제 네트워크가 아주 유익할 수 있다.
33. **갈등 해결.** 그때의 상황이 복음의 요구와 충돌되거나 지역 시민 사회의 윤리관에 저촉될 때에는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다. 마리아회의 사도직과 교회 사도직의 청렴성을 생각해보고 종사자 개인의 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의 관리자는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 마리아회와 지역 교회의 상위권자와, 민간

9) 이런 사례가 있었다. 나폴레옹 1세에 대항하는 음모에 히야친트 라퐁이 경솔한 행동하고 여기에 가담하게 되어 샤미나드 신부는 심문을 받고 감옥에 갇혔으며, 결국에 소달리티는 오랜 기간 억압을 받았다.

기구와 접촉하고 급하게 행동이나 결정을 하지 말며, 문제는 재치있게, 관련자에 대한 존중심을 갖고, 그리고 관할권이 있는 장상과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

평가의 기준

34. **청소년에게 나아감**¹⁰⁾: 청소년들 대상 사목을 규정하고 평가하여 청소년들에게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목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한 것은 종종 “작은 회” 창립을 통해서였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나이에 맞게 책임자의 경험을 하고 그 위치에 맞게 하여 우리 창립자가 평신도 소달리티에서 했던 것처럼 젊은이들은 교육을 받고 책임감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35. **“가난한 이들과의 깊은 관계”**¹¹⁾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평가를 해보아야 하며,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리의 사명을 심화시키도록 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도직이 어떻게 우리의 은사적 투신을 구체화하는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36. **마리아니스트의 사업은 모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모든 마리아니스트 사목은 지역 사회가 명확히 필요로 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봉사에서 봉사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 사목을 함께 수행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가 충족되고 있는지 또는 만족시켜야 할 새로운 요구들이 있는지를 인식하여 이런 요구들이 정말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사도직에서 우리의 봉사를 받는 이들도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함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배 학생들은 그들이 수행해야 할 매월 정기적인 봉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활동에는 두 가지의 혜택이 있다. 봉사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직 방치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식하게 하고, 수혜자들은 그들이 받고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의식하게 하는 것이다.
37. **대담성과 창의성**: 어떤 상황에서는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수 있다. 사업은 그 지역의 환경에 맞게 잘 통합되어 빈곤한 이들, 소외된 사람들,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적 포용 정신으로 다가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을 평가할 때에 사도직의 사명의 영역에서 접근성과 융통성에 유의하고 마리아니스트 정신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38. **민간 기관이나 교회 기관과의 관계.** 마리아니스트 사업은 마리아회의 외부기관인 민간

10) 2012년 세계 총회 “수도회가 ... 가난한 이들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복음화에 대한 분명한 투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상동

기관과 교회 기관에 속해 있거나 관계가 있음을 의식하고, 이런 기관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관들로부터 오는 규범과 권고들에 대해서 적절히 응답하려 노력을 한다. 그러나 주어진 문화나 시민사회 또는 정치적 상황에서 공동선과 복음에 역행하는 관심사나 기준, 또는 법규 등이 있을 수가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교육 활동과 명확한 복음 선포를 통합하려고 늘 노력하는 가톨릭 학교들은 문화의 복음화에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적대적인 상황 때문에 더 많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국가나 도시에서도 가톨릭 학교는 소중한 자원입니다.”¹²⁾ 우리의 예언자적 증거를 양보하지 않고, 지혜와 신중함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은사의 적용을 통하여 우리가 상황에 응답하거나 더 나은 상황으로 바꾸는 법을 식별한다.

12)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복음의 기쁨” 134항

III. 마리아니스트 사업은 마리아니스트 수도 공동체에 의해 운영된다.

의미

39. **기준이 되는 마리아니스트 수도공동체.** 마리아니스트 공동체에서 은사적 영감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기에 마리아회의 사도직은 “마리아니스트”의 성격을 지닌다. 전형적으로, 이 마리아니스트 수도공동체가 사업체의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현존한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사도직에 종사하기 때문이거나, “더 큰 공동체”를 대표하는 마리아회 관구(지구)가 운영관리의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조직(이사회, 평의회 등)을 통하여 사도직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각 사업은 관구(지구)의 선교 계획에서 기인하는 마리아니스트 사업체의 선교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선교계획으로 인하여 통일되고 공동체에 기초를 둔 사업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정 사도직에 함께 하는 수도공동체가 없다면 사도직장이나 단위체의 장상은 서로 협력하여 더 큰 마리아니스트 공동체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징표로, 마리아니스트 단위체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단위체의 지원을 받는 은사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40. **마리아니스트 가족의 구성원.** 이 공동체는 더 큰 가족인 마리아니스트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마리아니스트 가족은 다른 마리아니스트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규정되고, 마리아니스트 가족의 영향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니스트 가족은 공통의 사도직에서 협력이나 공통 사명에 관하여 안내하고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리아니스트 가족의 다른 가지(branch)나 유관 단체와의 대화에서 대변인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41. **법인:**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지역 당국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리아니스트 사업은 법인이 있어야 한다. 이 법인은 지역의 법률이 규정하는 대로 마리아회가 또는 단위체가 보유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조직에 따라 (형태와 명칭은 다양할 수 있지만) 지분과 관리 조직을 통하여 행사되어진다. 어느 경우든 마리아회는 사업에 대한 은사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행사하여 사업의 교회적, 마리아니스트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조직이나 다른 운영체의 이사장이나 관리자를 선임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을 접수하거나 지속할 수 있을지 의심해봐야 한다.

영향

42. **수도회의 본성:** 마리아회는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첫 번째 도구”(생활규칙 67)인 공동체로 사명을 수행하는 활동수도회이다.

43. **“결코 죽지 않는 사람.”** 사업의 영속성, 그 정신과 존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복자 사

미나드는 “결코 죽지 않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수도회의 필요성을 주시했다. “소달리티의 대표자에게는 죽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을 위해 자신을 하느님께 바친 사람들, 거룩한 순명 아래에서 양성되어 성숙하게 된 후에 이를 수행하고 같은 정신과 같은 수단으로 서로에게 전달 해줄 사람의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¹³⁾ 그 “죽지 않는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다른 불을 타오르게 하는 불을 활기 있게 한다.” (2012년 세계총회)

44. **결과로 나타나는 이득:** 수도자의 존재는 그 사업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증언하는 예언자”¹⁴⁾의 기능을 하게 하며, 필수적인 것에 대해 영속적으로 경계심을 갖게 해준다.

45. **성소 사도직과 우리의 일.** 교회의 사명 중 하나는 바로 개인에 대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묵상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에서 자신의 성소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부르심은 여러 방법으로 오는데 여기에 수도자로서의 부르심이 포함된다. 사람의 성소를 인식하고 식별하는 것은 텅 빈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며 가끔은 우리의 일이라는 배경에서도 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성소 사도직과 우리 은사 전달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은사는 매력이 없이, 그리고 새로운 수도 성소의 개발이 없이는 지속될 수가 없다”(생활규칙 5.7). 그러므로 마리아니스트 수도 공동체는 “사도를 양성하고 수도 성소를 촉진하는 사도직을”(생활규칙 73)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마리아니스트 공동체를 통하여 사도직의 마리아니스트 정체성을 확실히 함

46. **단위체 공동체의 근본적인 역할:** 이 역할은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고, 상황과 필요에 맞게 바뀔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단위체는 사업체 활성화를 위해 통일체(공동체)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원칙적인 의무들에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1. 그 단위체에 알맞는 특성에 따라서 특정 사업이 적용하고 실천할 선교계획 missionary program을 단위체에 수립하는 것.
2. 사업에서 중요한 위치(사도직장, 인적 자원이나 재정 부분의 책임자)에 적당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한 적당한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
3. 진행 중인 사업에 함께 하며, 지원하고 충고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 그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

13) The Chaminae Legacy, I, 문서 154번: “반박... 6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14) 2014년 11월 21일 축성생활의 해에 모든 축성생활자들에게 보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도적 서함, II, 2.에서 2013년 11월 29일 “총장들에게 한 연설”을 인용하여 한 말씀

4. 특정 상황에서 사업체를 돕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인적 자원을 보내는 것.
5. 직접 또는 대표를 보내어서 사도직의 관리직에 참여하는 것.
6. 사도직을 도와 *“개인과 단체의 믿음 성장을 위한 마리아니스트적 방법론을 개발하도록 하며 신앙의 더 분명하고 더 체계적인 페다고지는 우리의 사명에 더 심화된 마리아니스트 정체성을 가지도록 해준다.”*(2001년 세계 총회 27g항)
7. 각자에게 본인 사명의 살아 있는 의식을 보존하도록 해주는 내부 통신을 지속하고, 단위체와 사도직 간에 상호 소통을 유지하는 것.

47. **대리인:** 사도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명한 기준과 단위체 장상의 권위 아래에서 특정한 존재가, 예를 들어 사업장 근처에 또는 그 안에 위치한 마리아니스트 공동체나 자격이 있고 유능한 평신도나 수도자로 구성된 위원회(프랑스의 Conseil de tutelle, 미국의 sponsorship, 스페인의 Patronato 등)가 위임받아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48. **지역 마리아니스트 수도 공동체.** 기존의 사도직은 그 안에 지역 공동체가 있으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단위체는 항상 이를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지역 마리아니스트 수도 공동체는 그 사도직에 특별한 방법으로 수도 생활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우애, 영성, 파견 받았다는 의식 등)을 제공한다.
2. 공동체가 사도직에 연관을 맺고, 거기에서 일하는 수도자들이 투신하는 것으로 공동체는 그 사도직 안에서 마리아니스트적 특성을 좀 더 견고하게 각인시켜 줄 수 있다. (2012년 세계 총회 28항)
3. 평신도 동료들이 증거하는 것과 같이 수도자들의 “살아있는 현존”은 상호 혜택을 풍요롭게 한다. 수도자는 사도직 안에서 실제적인 노동 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평신도들은 좀 더 잘 이해받고, 격려받을 수 있으며 우리 정신,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 은사에 대한 감각을 더 잘 가질 수 있다.
4. 나이가 많이 든 수도자들의 경우, 사도직에서 더 이상 전문적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도직의 구성원들에게 증거를 하고 그 일에 봉사함으로써 은사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5.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마리아니스트 수도자들은 과소평가될 수 없는 독특하고 필수적인 선물을 분명히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9대 총장이었던 폴 호퍼(Paul Hoffer) 신부의 저작은 이를 분명히 설득력이 있게 말해준다.

49. **활기차고 창의적인 성소 사도직.** 수도자이건 평신도이건 사도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성

소를 위해 함께 한다면 마리아니스트 수도 공동체와 그 사도적 사명이 영속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평가

50. 정기적으로 그 사업이 **사목적·선교사적 계획**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런 평가는 지역 차원에서(사도직과 지역 마리아니스트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단위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1. **현존**: 평가가 진행될 때에 단위체의 평의회가 각 사업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지, 그 사업 자체와 거기에서 협력하는 사람들의 문제점과 성공에 민감한지 등의 중요한 질문들을 해보아야 한다.
52. **개입intervention**: 사업을 평가할 때에 특별한 지도와 동반이 필요하다면 단위체의 운영부는 여기에 개입을 하고 나중에는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개입의 성격과 형태는 그 특정 사업의 관리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며 보조성을 명심하고 권위체계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53. **지역 수도공동체와 사업 사이의 관계**: 사도직의 책임자와 지역 공동체의 책임자는 공통 사명을 공유한다. 그래서 개방적이고 존중하는 상호 작용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사도직 지도부와 마리아니스트 공동체 지도부 사이의 연대의 정도는 “마리아니스트” 사업으로서 사명을 수행하는 사도직의 능력에 정비례한다. 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54. **우리 사도직의 열매인 수도 성소**: 마리아회의 대부분의 사업이 특별히 수도성소 증가의 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사업에도 이런 동기가 빠지면 안 된다. 여러 결실들을 평가할 때에 우리의 사업에서 성소 배출을 기대한다. 우리는 우리 사업의 결실에 성소 개발 프로그램(생활규칙 6.7 그리고 6.8)의 존재, 새로운 수도성소와 사제성소에 대한 매력과 발전을 언급하는(생활규칙 73조와 5.7) **생활규칙**의 규정에 합치되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IV. 마리아니스트 사업은 진정한 가족 정신을 창출하도록 설계된 구조의 뒷받침을 받는다.

의미

55. 마리아회의 사업은 우리의 전통상 고유한 **은사적 목표와 형태를 지원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업들의 운영과 관리는 공동 결정, 보조성, 동료의 협조관계 등을 설명하는 *Principal Characteristics of Marianist Administration* (CMA, 마리아니스트 행정의 주요 특성)이라는 지침에 따라 수행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은 마리아니스트의 필수 요소인 가족 정신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게 된다.

56. 사업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하는 **운영팀(Leadership Team)**의 지도를 받는다.

1. 구성원들 안에서 함께 나누는 책임과 공동 결정
2. 사업 안에서 마리아니스트 은사의 수호자로 마리아회를 인식
3. 단위체 평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그리고 각 사업의 관리자와 이해당사자의 책임을 명료화
4. 평가 도구를 행정·재정 관리시스템에도 통합 사용

57. 마리아니스트 사도적 활동의 중심에 있는 **인격 향상**에 CMA를 도입한다. 따라서, 모든 마리아니스트 사도직장과 관리자들은 그 사도직에 종사하는 이들의 애덕, 관용, 자비, 칭찬, 그리고 내면성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강생하려 하셨고,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예수를 낳아 주신 마리아의 사명이 우리 사업의 중심인 만큼 우리 사업의 지도자들 스스로가 마리아의 방식(위 12항 참조)을 본받으려 노력한다.

58. 사업의 경제적 문제는 신중히 관리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성 있는 방식으로 그 사업의 사명을 수행하기에 충분하게 **재정적 안정**을 보장한다.

영향

59. **삼부**의 체계는 창립자로부터 마리아니스트들에게 전달된 큰 선물이다. 이 체계는 어떤 상황이든 지 세 개의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어 어떠한 필수적인 측면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균형 잡힌 완전하고 신중한 결정을 하게 한다. 여러 사람의 다양한 실력을 끌어내는 이런 운영방식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내리는 잘못된 결정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 이런 관리 모델은 여러 해 동안 그 가치가 입증되었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이런 소중한 보물이 존중되지 않을 때에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해야 했음을 알 수가 있다.¹⁵⁾

15) 알란(Lalanne)과 래락(Layrac)의 사건: 샬미나드 편지 772번. 1835년 4월 27일 Mémain 수사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편지 791번. 1835년 8월 4일 Lalanne 신부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이 편지에 대한 서론)...Layrac의 일은 몇 년간 지속되었으며, 우리는 샬미나드 신부의 편지에서 이 슬픈 변화를 수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손실을 입었던 채무는 SM의 운영을 거의 못하게 만들었고, 창설자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서 극도의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60. **사도직의 리더 선택과 양성**은 단위체 운영부의 가장 중요한 구체적 임무에 해당한다. 가능하다면 내부 승진으로 새로운 리더를 뽑는 것이 그 사업의 사명과 관련하여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권장할만하다. 이와 비슷하게, 사도직의 모든 인사의 양성을 주의 깊고 풍부히 한다면 전문성과 마리아니스트 전통에 대한 지식을 위하여 사업장 안에서 새로운 리더를 뽑음에 있어서 신중한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새로운 사람이 어느 직무의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 생각할 때에 추가적인 양성이 필요할 수 있다.
61. 삼부의 체계는 **공동책임에 대한** 폭넓은 의식을 개발하는 데에 이바지하여, 리더가 아래의 것들을 인지하도록 돕는다:
1. 취해진 모든 지향 방향과 결정은 사업 자체에 뿐 아니라 단위체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리아회와 심지어 교회에까지 영향이 있다.
 2. 특정 시점에 우리에게 맡겨진 어떠한 책임은 우리가 청지기의 자격으로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이 끝날 때에는, 그때가 언제 오든 다른 이의 손에 맡기기를 요청한다. 따라서 그 사업은 운영하는 이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사업을 물려받았으면 그들이 받았을 때보다 더 좋은 상황에서 넘겨주기를 요청받는다.
 3. 누구도 폐쇄적 상황(closed circuit, 폐쇄회로) 안에서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 각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 사업, 마리아회, 그리고 지역교회와 보편교회의 정신과 사목적 지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다.

진정한 가족 정신을 증진하는 구조를 확실히 함

62. 삼부조직에서, 책임·정책·부서의 임기·행동 강령 등을 **분명하게 명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더 엄격하여 창조성을 질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협력자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이 사명을 이루도록 해주는 지휘체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싶어 하는 욕구를 존중하는 것이다. 동시에 끊임없이 사업의 정신을 쇄신하고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면서 독창성과 진취성을 고무시킨다.
63. 마리아회와의 관계 안에서 **사업의 역사**를 정기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그 사업이 마리아회로부터 전수받은 것과 그 마리아회에 공헌해온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64. **개인적인 동반**을 통하여 그 사업에 함께 하는 이들이 성장함으로써 관리팀, 직원, 또는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는 성공담을 발표하고, 그들이 힘들 때에 함께 하고, 새로운 구성원들이 잘 어울릴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 등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때에는 자신의 책임 수행에 실패한 이들이나 사명에 이바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욕구를 보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이 “형제애적인 충고”를 받고, 존중심과 명료성 안에서 이를 직면하고 교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65. 각 사업이 **그 사업을 넘어선 더 크고 넓은 어떤 것**(예: 마리아니스트 지역 단위체, 전 세계의 마리아회)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인식하는 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다.

1. 개개의 사도직은 적합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한다. 전형적으로 네트워크는 특별한 단위(예를 들면 재정, 사목, 마리아니스트 교육학, 양성 프로그램, 마리아니스트 행사 진행 등으로 나누는 단위)에서 목적과 실천이 조화되도록 돕는다.
2. 단위(예를 들면 조직의 장, 행정실장 또는 사무국장, 교목실장, 교리교사, 관리인 등)의 여러 일을 위한 공동 활동을 조직한다.
3. 정상적이고 건전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사업, 그리고 다른 이를 돕는 데에 유용한 일을 함으로써 연대를 증진한다.
4.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뛰어난 성취를 이루거나 헌신을 한 이들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으로 치하하는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5. 마리아회가 그 사업과 가까운 관계에 있음을 표시하고, 이런 가까운 연결 관계가 유기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축하는 자리(생일, 취임, 가족 행사나 개인 행사 등)에 단위체 평의회나 지역 마리아니스트 공동체가 참여한다.

평가

66. 사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조직(단체)에 관한 법규나 법률, 지역의 조례** 등에 주목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된 규정에 따라 개정된다.
67. **마리아니스트 선교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사업장 안에 가족 정신을 유지하는 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요구된다. “우리 창립자의 선교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열쇠 중의 하나는 공동체 안에 신앙이 가장 잘 살아지고 발전되도록 돕는 창설자의 직관적 통찰을 인식하는 것이다. 가족 정신과 공동체의 설립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연대의 결속은 우리의 강점이었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강점일 것이다.”(2001년 세계 총회 문헌 24c 항) 이 충실성의 표지는 아래와 같다.
 1. 여러 단체와 청소년 운동을 증가시켜 마리아니스트 가족의 성장에 대해 이바지하기
 2. 넓은 의미에서 인생의 큰 질문과 삶의 의미에 대한 숙고, 그리고 성소에 대해 숙고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권고한다.
 3. 크리스천이라 고백하는 이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기회, 그리고 특수 성소에 대해 숙고하고 성소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권고한다.
 4. 사업의 주요 책임자들은 마리아니스트 선교 목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그들의 행동과 결정을 위하여 이러한 이해로부터 영감을 얻는다.
 5. 사업과 관련된 이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사명에 대해 친화감과 개인적 친밀함을 나타낸다.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중요한 개인적 일이나 가족 행사에서 그들은 사업장 공동체(SM 공동체와 직장의 모든 관계자들의 넓은 의미의 공동체)가 그들을 동반하고 있음을 느낀다.
68. 카나에서의 마리아께서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준비됨(willingness and availability)**의 정신이 마리아의 사명 안에서 모든 사업의 중요한 특징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일에 종사하는 이들의 이런 기꺼움과 준비성을 마리아니스트 공동체와 함께 평가하는 것으로 그 사업이 마리아니스트 사명과 일치하는지 알 수 있다. 사업에 연관된 수도자들이 (환경이 허락된다면 충분히 쏟아 부을) 사명감과 파견받았다는 정신

을 가지고 있는가? 사업장에 이 정신이 잘 공급되는가? 사업장에서 평신도 협력자들은 이 정신을 공유하고 받아들이고 만들어내는가?

V. 마리아니스트 사업은 사람의 온전한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의미

69.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마리아니스트 사업은 이런 능력을 지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에, 단위체가 설정한 마리아니스트 사업의 본성과 선교적 우선 순위에 따라, 사람들이 하느님을 더 잘 알고, 더 좋은 삶을 살고, 훌륭한 사람으로의 성장을 추구하는 **양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마리아니스트 사업의 구체적 양성 활동 계획이 요구된다.
70. 이런 양성은 **포괄적**이며, 사업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직접적인 수혜자들과 사업의 협력자인 다른 이들도 겨냥한다. 특별히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위의 문헌 60항 참조).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수도자들이 그 새로운 사도직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기 위하여 양성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71. 양성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며 그 사업에 맞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이로써 협력자 양성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그들의 역할 강화를 추구한다. 관련된 모든 이들이 대상인 이 양성 프로그램은 신앙과 마리아니스트 은사를 강화시키고 교육하며, 지도력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인간적 사회적 이슈에 민감한 도덕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능하다면 마리아니스트 가족의 다른 가지들의 협업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이 유익하다.

영향

72. 사업이 가지고 있는 당장의 목표를 넘어서,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시야를 넓히고, 행복한 영혼으로 이끄는 동시에 억압, 괴로움, 고통, 그리고 절망을 감소시키는 **인간의 긍정적 변화**라는 우선적인 목적을 모든 사업이 가지고 있다. “모든 직업은 생산품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건설한다.” (에마누엘 모니에). 우리의 활동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더 낮게 변화하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일이 복음의 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73. 사업의 **필수적인 자원**은 경제적인 것에 우선권이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사업에 생명을 주고, 잠재력을 온전히 성취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성취하도록 이끄는 것은 사람이다.
74. **창설자와 우리 역사의 본보기**를 잊지 말자. 샤미나드 신부는 단순히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잘 훈련된 사람이 없어서 흥미로운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는 당신의 제자들이 잘 훈련된 사람을 찾기도 전에 너무 많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제자들에게 유감을 표시하였다. 좋은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마리아의 딸 수도회의 학교는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큰 규모로 발전할 때까지 교사들과 평신도 관리자를 양성하면 좋겠습니다.*” (샤미나드의 편지 171번, 1821년 8월 27일 모니에Mounier에게)

전인적인 사람 양성을 확실히 함

75. **양성의 담당자**는 마리아니스트 은사를 전하는 것에 우선적 역할을 담당하라고 불린 마리아니스트 수도자이다. 양성의 또 다른 담당자에는 현존하는 마리아니스트 가족의 다른 회원과 우리 은사의 핵심을 충분히 알고 있는 협조자이면 된다.
76. 우리에게 유용한 많은 **기존의 자원**이 있다. 특히 이미 알려진 마리아니스트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 특별히 다음의 사항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1.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훌륭한 마리아니스트 사도직 지침의 “고전”이 있다. 이 중 하나는 폴 호퍼 Paul Hoffer 신부님이 쓰신 *Marianist Pedagogy*로서 다른 많은 것들을 훌륭하게 종합했다. 교육관계자들에게 있어서 이는 강력한 자원이다.
 2. 마리아니스트 교육의 특성(CME)은 우리의 사도직에서 중요한 부분인 교육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도구이다. 하지만 이 문헌은 언어에 맞게 작은 수정을 하여 우리들의 다른 사도직에서 쉽게 각색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특성들은 틀에 박힌 슬로건이나 단순한 형식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특징은 그 의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연구하는 것에서도 더 큰 이익을 얻도록 그 자체 안에 상당한 깊이의 양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문헌 *마리아니스트 행정의 주요 특성 (Principal Characteristics of Marianist Administration, CMA)*도 역시 행정과 관리를 위한 가치있는 핸드북이다.
 4. 선집인 *마리아니스트 교육: 유산과 미래(Marianist Education: Heritage and Future)*는 CME와 CMA 영역을 커버해주고 심화시키는 문서인데, 우리의 전통과 은사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는 핵심 견해를 제공해준다.
 5.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단지 표면적인 것만 건드릴 뿐이고 더 많은 것이 있다. 다행히 우리에게서 우리의 사도직에 대한 성소를 명확하게 해주는 평신도와 수도자들이 이끄는 과거와 현재의 사업들이 있다. 지역에 있는 마리아니스트 연구소는 이런 종류의 양성에서 지침을 제공하는 데에 특별히 도움이 될 것이다.
77. **사업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양성자들의 선정과 양성.** 사도직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책임 부서에 참여할 이들(평신도 또는 수도자)을 찾고 그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78. 우리의 사업과 그 사업에서 일하는 이들은 역동적이고 활기차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생애 양성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다. 이는 여러 형태를 가질 수가 있다.
1. **공동의 나눔을 통한 양성:** 사업체 안에서 우리는 신앙과 다른 여러 영역, 즉 종교적, 전문적, 사회정치적, 직업적 영역을 포함하는 개인적/전문적 성장에 대한 숙고의 기회와 그룹을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봉사 대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기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2. **조직적인 양성:** 사람들이 특정 일에 종사하는 동안 그들에게 명확한 트레이닝을 제공하기 위해 꼼꼼하고 일관성이 있고, 완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고 사업의 특성과 구조에 적합하게 적용해야 한다.
 3. **실수를 받아들이 수 있도록 양성.** 사람은 어떤 활동이나 삶에서 항상 성공하지는 않는다. 실수는 시도하면서 체험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장단점이 엇갈리는 것이다. 때로는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견디기 어렵지만 이에 잘 대처하면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도 한다. 양성

프로그램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4. **시간 관리:** 일에서 떠나 있는 시간 역시 시간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사람과 일에 유익하다. “재충전”할 수 있고 일의 효율성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생성할 수 있다. 시간을 온전히 머리 식히는 데에만 쓰지 않고 진정한 “재창조”의 시간이 되고, 전문성을 위해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과 지식에 깊이 탐구하는 시간이 된다면 (예를 들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또는 다른 마리아니스트의 세계를 알기 위해 외국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휴가” 기간의 유익성을 발견할 수 있다.

평가

79. 오늘날 세계의 **다양성의 도전**은 실재한다. 우리의 사업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성이라는 것은 풍요로움의 원천이지 우리 사명의 장애물이거나 청소년 사목이나 봉사, 선교 사업과 신앙 교육을 가로막는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80. 관리자의 책임을 맡은 이들이 그들의 **리더십으로 일에 대한 존경과 은사(카리스마)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는가? 그들은 우리의 카리스마를 잘 알고 무엇보다 자신 안에서 그리고 그들이 종사하는 일 안에서 이를 심화시키기 위한 일을 하는가? 관리자의 연임을 생각할 때에는 이 차원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숙고해야 한다.
81. 정기적으로 **활동의 발달을 검토하여** 적절성을 판단하고, 사용된 방법들을 살펴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능하다면 다른 것들도 추가하여 평가를 해야 한다.
82.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기쁨은 필수적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일과가 끝날 즈음에 육체적으로 피곤해질 수 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종사하는 일을 가치있게 여긴다면, 직장에서 카리스마를 더 잘 알고 생활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직장에서 이를 더 잘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더불어, 그 사업의 수혜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들은 경험으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이며 우리의 일이 사람들의 삶에 참되고 영속적이며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지, 그런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넓은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VI. 마리아니스트 사업은 정의, 평화, 연대, 그리고 창조물 존중을 함양하는 데에 유익하다.

의미

83. 우리의 삶을 통한 증거,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 관련 일을 통한 우리의 노력은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을 통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갈망을 키워 준다.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의 공동의 집을 보호해야 하는 긴급한 과제에는 모든 인류 가족을 함께 모아 지속 가능하고 온전한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¹⁶⁾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정의, 평화, 연대, 그리고 창조물에 대한 존중은 오늘날 마리아니스트 사명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공동의 집을 보호하기 보다는 계속 착취하”¹⁷⁾고 있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84. 그러므로 이 관심사는 “마음의 회개로 우리를 부른다. 개인으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공동체로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고 자원을 나누며 따뜻한 환대를 제공해야 하며, 화해와 진정한 인간 친교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1996년 세계 총회, 21쪽)
85.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지평을 넘어서 나아가야 한다. “폭력, 갈등, 그리고 테러는 가난과 좌절감에서 태어난 공포와 불신, 그리고 절망을 먹고 산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¹⁸⁾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가지고 공동선을 위한 진실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86. 가난은 많은 얼굴을 가졌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참여에서 배제된 이들, 희망이나 사랑이 없이 사는 이들, 그리고 온전하게 전파되는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이들을 말하는 것이다.” (1996년 세계 총회 22쪽)

영향

87. 우리의 사업은 한 인류 가족의 일원으로서 동료 의식을 마음에 새기며, 하느님의 백성의 영적인 삶과 인간적 삶을 양육하는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역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다. “사회 계급과 민족들 사이에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 부유한 수많은 청년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역경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슬프고, 가난한 나라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나라의 극도의 빈곤에서 탈출하려고 이주하여 문화적 뿌리가 없음을 체험하는 것이 슬프다. 불의, 압제, 가난, 그리고 실직한 폭력, 전쟁, 차별, 불안정 을 만들어 낸다.” (2001년 세계 총회, 12항) 우리의 사업은

16) 교황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13항

17) 교황 프란치스코, 케냐의 당국자와 외교단에게 한 연설, 나이로비 2015년 11월 25일

18) 상동

이런 불의를 먼저 인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책을 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불의를 줄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우리들의 열망을 반영한다.

88. **주님의 본보기.** “당신의 생애 동안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소외받는 이들을 화해시키시고, 사회에서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에게 팔을 뻗치시며,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난한 이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이들, 정의에 굶주린 이들을 축복하셨다(마태 11,4-6 그리고 5,3-10). 예수를 본받는 이로서(생활규칙 2),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는 ... 핵심적인 부분이다. ... 가난한 이들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얼굴을 본다”(마태오 25, 3ff, 봉헌생활 75항)¹⁹⁾. 우리의 사업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자비로운 그리스도의 육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9. **창설자의 본보기.** 복자 사미나드는 그의 신심회 회원들과 제자들에게 단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존중받지 못하는 (죄수, 굶주린 청소부..) 곳에 사람들을 보내어 “미세리코르드 Miséricorde의 사업”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재발견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마리-테레스 라무루스를 지원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그의 인간 존엄성 증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학교와 직업 교육을 통한 교육으로 나아가려는 그의 선교적 방향을 갖게 했던 동기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 이 사명을 지속한다.
90. 사도직의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항상 사회의 낮은 사람과 잊혀진 사람들을 돌보는 사명에 헌신해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전통에는 우리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사회” 사업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내에서 다수의 “작은 회 little society”뿐 아니라, 무료 강습, 비정규 교육 등은 젊은이들이 다른 이를 위한 봉사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의 사업이 더 정의롭고 온전한 사회에 공헌함을 확실히 하기

91. **연대,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보전을 위한 명확한 교육**²⁰⁾ 마리아니스트 교육 사업은 반드시 명확히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언어로는** 무엇이 가난을 야기하는지, 불의의 뿌리는 무엇인지 이해하게 돕고, **행동으로는** 연대, 정의, 평화와 창조물의 보호의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초대해야 한다!
92. 미래의 모양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은 사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임을 알기에, **교육의 독특한 역할**은 가난한 이들의 필요에 응답하고 정의와 평화의 이슈를 제고하는 방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¹⁾

19) 1996년 세계 총회, §40

20) 교회의 가르침에 빛을 받아, 우리의 사업은 종사자들이 정의평화의 영역에서의 봉사하는 데에 관여하도록 하여 정의평화의 문제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주도록 한다. (1996년 세계 총회 23쪽) 예를 들면 본당이 Ozanan 스타일로 빈첸시오회를 결성해 무료급식소를 만들거나 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 도움을 주거나 문맹 해소 교육을 하는 등 자선사업을 벌인다. 모든 연령대의 젊은이들은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그들이 책임있게 참여하도록 견습 기간을 보낼 수 있는 곳에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넬슨 만델라, 2003년 7월 16일 연설

93. **단순한 선택.** 마리아니스트 정신에 따라 관리와 행정의 일을 맡은 이들은 “단순한 방법과 기반 시설”을 우선시해야 한다. 단순성은 일반인들이 우리 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은 예를 들어 지역적으로 유용한 수단과 자원의 사용에 의지하여야 한다. 마리아니스트 수도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기와 비슷한 동기로 고무되어 우리 생활 규칙 26조와 27조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의 사도직의 효과성, 미(美) 또는 조화를 손상시키지 않고 우리의 일에서 단순성의 정신을 반영하려 노력한다. (1996년 세계 총회 23쪽)
94. 우리가 투신하는 내내 **화해와 평화에 조력하고 육성**하는 수단을 이용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동시에 우리는 도전이나 경쟁이 아닌 평화와 상호보완을 통하여 사회관계를 형성하려 노력한다.

평가

95. **재정부**는 단위체의 지침에 따라 정의, 평화, 창조보전을 제고하는 목표가 잊혀지지 않고 소홀히 되지 않도록 확인한다.
96. 검증된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장 안팎에서 **정기적인 평가**를 하여 평화지킴이로서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에 대한 헌신을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97. 공동체와 사도직 현장에서 정의에 대한 개인적·단체적 노력이 발전되는지 점검할 수 있게 평가와 검토의 방법이 **단위체 수준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996년 세계 총회, 24쪽)
98. 우리의 사도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마리아니스트 은사와 더불어 **충실성의 모범이시요, 고통받는 이들의 중재자이신 마리아**께 드리는 간청은 우리 사명을 규정한다.²²⁾ 마리아니스트라 부르는 일(사업)은 전체로서, 그리고 운영하는 개인 안에서 이런 마리아적인 특성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업(일)은 *마니피캣*에서 마리아가 선포하셨던 찬미와 희망의 겸손한 노래의 참된 메아리가 되는 것이다.

22) “예수님을 돌보신 성모 마리아께서 이제 이 상처 입은 세상을 모성애로 함께 아파하며 돌보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꿰찔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신 것처럼 핍박받는 가난한 이들과 인간의 힘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의 피조물 때문에 지금도 슬퍼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변모하신 성모님께서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태양을 입고 발밧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묵시12,1) 여인이시며 하늘로 들어 올려지시어 모든 피조물의 모후가 되십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신 성모님께서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며, 피조물이셨던 분으로서 그 완전한 아름다움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의 의미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지혜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성모님께 간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 241항

결론

99. 마리아회의 제3세기의 새벽이 밝아 온다는 말은 우리의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최근 20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는 마리아회와 그 회원들을 통해서 받았고 사도직 안에서 받았던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주 돌아보았다. 우리는 또한 미래를 향한 마리아의 사명, 우리의 사명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데에 우리 자신을 재(再)투신하라는 분명한 요청을 들었다. 하지만 마리아회의 사도적 봉사에 대한 마리아회의 상황은 몇 년간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의 사업에 몇 년간 은사적 양성에 몸담아온 수도자들을 매꿔 넣는 대신에 이 사명에 우리와 함께 해온 평신도들과 점점 더 많이 관계를 맺는다. 그들은 이런 사업에 자신의 특별한 성소를 가지고 오고,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들이 자신을 통하여 마리아니스트 은사의 은총을 제공받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들 평신도 역시 수도자들처럼 이 사업이 마리아니스트 정체성을 갖는 사업이기를 진정 바라며, 이 사업이 은총인 이유는 전통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 특별한 선물, 은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³⁾

100. 이 문서는 마리아니스트 사도직의 “주요한 가치(원칙)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가치들은 글자의 진정한 의미 그대로 “주요한” 것들이어서 우리 사업의 정체성이 “매달려”있는 요소들이다. 이 문서의 형식을 전개해나가는 연구를 하면서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전망이 새롭고 다른 도전을 준다 해도 이런 도전에 맞서는 방법과 수단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200년간 우리의 사업을 활성화시켜 왔던 풍요로운 문서, 자료, 그리고 전통은 새로운 시대에 적절하게 적용되어 진정한 마리아니스트 사도직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원칙들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마리아니스트 사도직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이해와 감사,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것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서 우리의 은사가 흘러나오는 샘물인 원천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촉구한다!

성삼의 영광과 마리아의 영예를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구원 사명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사명 안에서 함께 우리가 일하는 동안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어머니 마리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되신 창립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해주시기를 빕니다.



23) 마리아회 총장 마누엘 꼬르페스 신부의 회람 6호 우리 창립자의 영감을 알고 사랑하고 봉사하기 (2017)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정신에 평신도들이 깊이 밀착되어 있는 현상은 마리아회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도회에, 무엇보다 활동수도회 전체에서(하지만 활동수도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관상수도회에서도 기라성 같은 평신도 신자들의 그룹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분명하고 부정할 수 없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이 현 시점의 교회 내에서 여기에 성령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고 합니다. 관대하고 책임성 있는 평신도들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면서 성령은 우리가 그들을 위한 봉사에 투신하라고 부르시고, 평신도들이 신앙을 살고 크리스찬적 헌신을 살면서 우리의 은사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공하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수도자들에게 바라고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에 대한 답을 세 가지의 단어로 종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는 사명, 형제애, 그리고 영성입니다.” 봉헌생활 (Vita Consecrata) 54-56항도 참조하십시오.